

## 폭력의 시작, 전개 그리고 대안

안 경 승\*

### 국문초록

인간에 대한 성경의 증거와 역사가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삶에서 폭력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사탄과 그 무리의 영향력은 인간의 언어와 행동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폭력적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그렇다면 폭력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되고, 예상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구성요소 중에 공격성과 분노를 살펴본다. 공격성은 행동적 요소, 그리고 분노는 감정적 요소로 이해되는 인간의 근본적 성향이다. 특히 이들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방향성, 즉 건설적인 측면과 파괴적인 측면을 분별하며 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이들의 역할을 살펴본다. 공격성과 분노 모두 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때, 폭력을 대응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폭력에 대한 대안에 있어서 기독교적 관점을 개입하여 회개와 힘과 사랑의 통합이라는 요소를 제안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회개를 통해 새로운 관계의 장을 열 수 있다. 힘과 통합의 핵심적인 수단이자 능력은 용서이고 용서는 관계적인 차원까지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심단어 :** 폭력, 공격성, 분노, 회개, 용서

---

• 논문 투고일: 2011년 4월 12일  
•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12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1년 4월 28일

## I. 여는 글

한국결혼산업연구소가 미혼남녀 529명(남 231, 여 298명)을 대상으로 ‘어떤 경우 이혼을 결심 하겠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결과를 보면 남녀 합쳐 이혼 사유 1위는 가정폭력(39.5%)이 차지했으며 불륜(33.1%), 알코올이나 도박중독(9.3%)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sup>1)</sup> 의처증과 의부증(6.1%), 성생활 불만을 포함한 성격차이(5.3%), 경제적 무능(4.0%)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1.7%)거나 지병(1.1%)이 있으면 이혼하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여성의 경우 불륜(29.5%)보다 가정폭력(59.7%)을 이혼결심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원’에서 2009년 500여건의 이혼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이혼사유를 보더라도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폭력이 가정해체의 중대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의 폭력이나 위협에 아내가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폭력 역시 늘어나고 있다. 맞벌이를 통해 경제력이 생기고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가정 내의 역할이 변하게 되면서 다툼이 잦아지게 되고 신체적 폭력과 함께 무시, 구박, 외도 등 남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 많아졌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가정폭력 발생 건수 중 ‘남편 학대’가 2005년 276건에서 2006년 299건, 2007년 345건, 2008년 35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본 논문은 폭력이 시작되는 이유에서부터 그것이 어떤 내부적 과정을 거쳐 표출되는지를 추적하고 기독교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폭력의 시작과 전개가 모두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그 대안 역시 신앙적 자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이를 위해 첫째, 폭력의 현실을 예상하게 하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성경에 비추어 조명해본다.

1) “남편 학대 높아지는 이유는?”, 「매일경제」, 2010. 12. 02.

둘째, 폭력과 밀접한 연결점을 갖고 있고 인간의 정서와 행동을 대표하는 분노와 공격성의 이중적 모습을 살펴보고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선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셋째,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영적 자원을 제시한다.

## II. 찢는 글

### 1. 폭력의 시작

통계로 분석되는 가정폭력 사건은 매 해 만 여건이 넘어가고 있고, 그나마 이 수치는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 알려진 것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비밀스럽고 암암리에 이뤄지는 수 많은 폭력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축소되고 덮여지고 있다. Pamela Cooper-White는 사람들이 폭력을 덮으려는 여러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2)</sup> 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루는데 있어서 방어기제를 가지고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폭력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아픈 현실을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

결혼을 성스러운 것으로 보고 가정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가정폭력을 인식하거나 논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정 내의 학대에 대한 부인은 널리 퍼져있다. 사람들은 인간상호 관계의 최선의 현장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가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 한다. 가정이 위험한 장소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럽다.”<sup>3)</sup> 신앙 공동체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폭력의 가해자, 방관자

2) Pamela Cooper-White, “An Emperor Without Clothes: The Church's Views about Treatment of Domestic Violence,” *Pastoral Psychology* 45(1996): 4.

3) Mildred D. Pagelow & Pamela Johnson, “Abuse in the American Family: The Role of Religion,” in *Abuse and Religion: When Praying Isn't Enough*, eds. Anne L. Horton & Judith A. Williamson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8), 2.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는 폭력에 대해서 거룩한 침묵을 지켜 왔다.

지금 우리 주변에 남편의 손찌검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마지막 돌파구로 살인을 택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신여덟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으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유서를 남겼다.<sup>4)</sup> 경찰은 오랜 가정폭력이 빚은 사건으로 보고 있다. 사회와 교회는 여전히 엄연한 폭력을 내밀한 가정사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안에 폭력이 만연한 것을 예상해야 한다. 인간의 타락에 비추어볼 때 놀랄 일이 아니고 대비하고 풀어가야 할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폭력에 대한 원인을 찾아왔고, 다양한 사회적, 가정적, 상호관계적 원인을 제시한다.<sup>5)</sup>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타락이 파괴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초래한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total depravity)했다는 사실을 가르친다.<sup>6)</sup> 타락은 악이 우리 인성의 모든 측면, 즉 마음, 심령, 인격, 감정, 양심, 동기 그리고 의지를 오염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렘 17:9; 요 8:44).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모습이 폭력이다.

성경은 악한 자를 짓밟고 피를 흘리며 죽이기를 즐기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한다(시 17:8-12; 잠 1:16-19; 미 2:1-2, 3:1-3). 물리적인 도구나 힘으로 사람을 해하지 않아도 혀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죄는 ‘목구멍’을 더럽게 하고, ‘혀’를 부패시키며, ‘입술’을 못쓰게 만들고 ‘입’을

4) “미운 남편”, 「조선일보」, 2011. 04. 19.

5) 기독교상담과 관련된 학회에서 2003년(목회상담협회)과 2008년(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에 ‘폭력과 기독교상담’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여성, 성, 아동, 정서, 언어학 대와 사회폭력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이 다뤄졌고 주로 심리학적 관점인 정신분석학, 자기심리학, 대상관계,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학대관계를 분석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사이의 힘에 초점을 두고 있다.

6) John F. MacArthur, “Counseling and the Sinfulness of Humanity,” in *Introduction to Biblical Counseling*, eds. John F. MacArthur & Wayne A. Mack (Dallas, TX.: Word, 1994), 101-102.

불결하게 한다(롬 3:13-14). 바울은 또한 죄가 어떻게 행동을 부패시키는지 보여준다. 인간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롬 3:15-17)라고 증거한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니라”라는 말은 죄악된 인간의 폭력에 대한 강한 성향을 묘사하는 것이다. 죄인들은 근본적으로 미움과 그 미움의 폭력적 결과에 끌리게 된다. “파멸과 고생” 역시 부패한 인간의 성향을 보여준다. 어떻게 죄악이 폭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바울의 증거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수 백건의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통해 입증된다.<sup>7)</sup> 그 때 이후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앞으로도 도적질 하고, 구타하고, 약탈하고 살인하는 문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타락 외에도 폭력이 자행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사탄과 그 부하들의 역할이 있다. 사탄은 성경에서 악으로 지칭되고 있고, 사탄은 폭력을 통해 개인의 모든 영역, 즉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영적 측면에까지 더럽히고 파괴한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명칭이 요한계시록 9:11절에 나오는데, 악마의 왕, 아볼루온(Apollyon, 파괴자)으로 불리웠다. 이 구절에서 파괴자 사탄은 세상 곳곳에서 인간을 신체적으로 괴롭히고 학대하기 위해,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진 악마를 보낸다”라고 한다.<sup>8)</sup> 폭력과 학대는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 2. 폭력의 전개

폭력이 전개되고 불러일으켜지는 여러 가지 인간의 구성요소 중에서 분노와 공격성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주제이다. 분노는 일반적으로 감정적 영역을 다룰 때 사용되는 표현이고, 공격성은 행동을 설명할 때 적용된다. Andrew D. Lester는 분노와 공격성이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다른 역동이지만, 공격적 행동이 분노에 의해서 유발되지 않을 때도 있고, 분노 역

7) Steven R. Tracy, *Mending the Soul*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5), 16.

8) Tracy, *Mending the Soul*, 19.

시 항상 공격성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sup>9)</sup> 단지 분노가 특정한 공격적 행동의 감정적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에만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공격성은 자극으로 유발되는 공격성(incentive-motivated)과 불쾌반응으로 유발되는 공격성(annoyance-motivated)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음식, 물, 쉴 곳, 생육 등)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 욕구에서 기인한 것이다. 감정 보다는 이성적으로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일반적 욕구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공격성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다. 이런 경우 감정의 자원인 분노에 의해서 공격성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쾌한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인 후자의 경우는 분노적 공격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분노라는 감정적 체험에 의해서 촉발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 1) 공격성

### (1) 공격성의 역기능

공격성은 혐의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신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지는 행동의 어떤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sup>10)</sup> 공격성이 지닌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폭력과 미움을 폭발시키는 근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공격성이 어떤 대상을 향해 폭력을 가하는 에너지와 힘이 될 때 상해나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sup>11)</sup>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중의 하나는 인간이 본래부터 본성적인 추동으로 파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12)</sup> 인간은 태어날 때부

---

9) Andrew D. Lester, *The Angry Christian* (Louisville, KT.: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67-72.

10) Leonard Berkowitz, *Aggression: Its Cause, Consequences, and Control*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1993), 3.

11) Anne Gilson & Carter Heyward, *Revolutionary Forgiveness* (Maryknoll, NY.: Orbis Books, 1987), 69.

12) 인간본성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정신분석학은 성욕과 죽음의 욕구(thanatos) 모두 인간본성의 본래적인 추동인 공격적 본능(aggressive instincts)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Anthony Storr, *Human Aggression* (New York: Penguin Books, 1992), 27.

터 정서적 행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본능을 지녔다고 본다. 이러한 본능의 욕구는 강력한 힘을 지녔지만,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본능의 욕구를 무제한 충족시킬 수 없고 이것이 다양한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비록 성경적 인간학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증명하려는 의도도 없었지만,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파괴적인 성향을 지적하며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반증해 주고 있다.

반면에 공격적 행동은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환경에 의해서 야기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 생각의 전제는 인간이 백지상태로 태어나므로 경험을 통해서만 인간성이 결정되고 선천적 행동은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유전적 소질과 환경적 조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행동목표를 배우고 학습한다. 인간의 공격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학습적 요인을 중요하게 본다.<sup>13)</sup> 학습은 주로 강화 또는 처벌 경험이나 모방과 관찰을 통해 이뤄진다.

첫째, 원가족의 영향이 있다. 남자아이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배우며, 여자아이는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남편이 부인을 폭행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의 물리적 공격행동의 빈도가 증가한다거나, 결혼 후에 아내를 폭행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연구결과를 접한다.<sup>14)</sup>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가정교육 역시 자녀들로 하여금 폭력을 조절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또한 청소년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둘째, 사회화 과정에서 심겨지거나 강화된 가치, 기준, 태도, 신념, 기대가 작용을 한다. 특히 또래집단이나 문화가 대리 경험과 모방학습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매개체를 통해 전달되는 폭력은 공격적 행동을 모방하여 공격적이 되게 한다. 폭력물을 보는 시청자에게 공격적 단서를 제공하면,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조건화된다. 공격적 행동에 대해 칭찬해 주는 장면이 있다거나, 모델이 자기와 유사할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 또한 술이나 약

13) Albert Bandura, *Aggress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42.

14) 김상균, 『폭력의 심리학』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5), 43.

물 같은 중독물질로 인한 영향, 감정적 속박, 고착화된 삼각관계와 관계순환적 패턴이 공격성에 영향을 끼친다.

인간의 본성 만이 아니고 다양한 공동체와 환경 역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폭력의 산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본다. 갖가지 악의 세력이 사회전반에 걸쳐서 스며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서 악은 개인보다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폭력의 싸움터로 몰아내고 있는 듯 하다. 우리가 은연 중에 배워 온 행동을 살펴보고,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강화물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요인 보다는 환경에서 기인하는 좌절의 결과로 공격성이 표출된다는 관점이 있다.<sup>15)</sup> 인간을 외부자극에 반응하는 유기체로 이해하였고, 좌절에 의해 유발된 추동에 의해 공격적으로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좌절로 인해서 항상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퇴행적 반응도 가능하고, 같은 좌절이라도 그것이 의도성이 있을 때는 상대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 더 일어나게 된다. 또한 절대적 좌절 또는 단순한 좌절을 느낄 때는 공격적 행동이 덜 하나,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가 못하다'는 것과 같은 상대적 좌절을 느낄 때 공격적 행동이 증가한다. 이 밖에도 공격적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① 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공격행동을 학습했느냐 여부에 따라 다르고, ②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좌절감이 더 크고 공격행동이 증가하며, ③ 개인차에 따르는데 보통은 지배적 아동이 비지배적 아동보다 좌절감이 올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된다.<sup>16)</sup>

또 다른 흐름은 공격성을 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sup>17)</sup>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하고 소외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서 주체성과 존엄성이라는 힘을 필요로 한다. 이 존재의 힘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때는 자기확신을 가져다 주고,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그러나 힘을 근원으로 삼는다 해도 자기주장적 반응은 파괴적인 만남을 초래하며 공격적으로 작용한다. 힘을 통해서 타인을 지배하고 동시에 자기존

15) 천정환, 『신범죄심리학』 (서울: 대왕사, 2006), 101.

16) 천정환, 『신범죄심리학』, 102.

17) Rollo May, *Power and Innocence* (New York: Norton, 1972), 123.

중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폭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가부장 권력가설(patriarchal power hypothesis)을 제기하는 입장은 가장에 의한 가족폭력을 자신의 행동이 가족구성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힘으로 억압하거나 가장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도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sup>18)</sup> 가정 만이 아니고 법적, 경제적, 교육적, 그리고 정치적인 면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지위가 낮을수록 폭력피해를 많이 입고, 반대로 지위가 높을수록 폭력피해는 감소한다.

한국남성의 경우 강한 남성다움(machismo)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지탱하게 하는 왜곡된 표현양식 중의 하나가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모습이다. 다양한 형태로 남성 폭력이 행사되고 있고 전체 폭력 중에서 남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에는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sup>19)</sup> 이익을 확보한다는 도구적 목표와 다른 사람의 지배라는 대인간적 목적이 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방식으로 목적인 것을 빼앗고, 더 나아가 권리, 가치 또는 필요를 무시한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는 솟아오르는 굴욕이나 수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 다툼이 심하거나 상처에 취약한 사람들은 좌절감이나 결핍감과 함께 수치를 느끼기 쉬운 이들이다.<sup>20)</sup> 수치를 느끼면 자아됨이 무너지고 자기존중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 다시 힘을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비판, 비난, 분노가 찾아오고 폭력이 불러일으켜지는 순환이 발생한다.

인간의 인감됨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힘이 방향에 따라서 창조 또는 파괴, 건설적인 행동 또는 파괴적인 행동, 긍정적 또는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힘은 관계적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sup>21)</sup> 존재의 힘을 확증하고 그것을 관계 속에서 어떤 방

18) R. Emerson Dobash & Russell P. Dobash, *Women, Violence and Social Change* (New York: Routledge, 1992), 176.

19) 김상균, 『폭력의 심리학』, 48.

20) 김병오, 『부끄러움과 가정폭력』 (서울: 학지사, 2009), 108.

21) James N. Poling, *The Abuse of Power: A Theological Proble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1), 24-26.

향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별의 책임이 주어진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됨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능하다.<sup>22)</sup> 우리의 진정한 자기 됨의 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시작되고, 힘의 통제 역시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실천하면서 온전해진다.

## (2) 공격성의 순기능

폭 넓게 이해하게 될 때, 공격성은 그 결과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수 있는 진취적, 적극적, 그리고 담대함 면을 가지고 있다. Clara Thompson은 “공격성이 생명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내적 성향에서 나온다. 단지 이러한 생의 힘이 그 발달을 방해받게 될 때 분노, 격분, 또는 미움의 요소가 그것과 연결된다”고 보았다.<sup>23)</sup>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삶은 자기부인의 겸손과 함께, 활력과 저항력, 어떤 경우에는 개혁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창세기의 첫 장은 인간 존재가 능력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졌다고 증거한다(창세기 1:26-28).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26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선언한 후에 본문은 ‘다스리라’고 명하고 있다. 여기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인 인간은 상당한 힘이 주어졌고, 그것을 생명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책임지어졌다는 사실이다. 왜곡된 지배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다스리는 힘을 활용해야 하는 도전과 과제는 지금도 계속 부여되고 있다.<sup>24)</sup>

성경은 여러 장면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러한 능력을 확증하면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힘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제안한다.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탁자 위에 올려놓아

22) 표재명, 『키에르케고어 연구』 (서울: 지성의 샘, 1995), 114-116.

23) Clara Thompson, *Interpersonal Psychoanalysis*, ed. Maurice Green (New York: Basic Books, 1964), 179.

24) David W. Augsburger, *Anger and Assertiveness in Pastoral Care*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82), 38-49.

야 한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다(마 21:12-13). 이러한 힘은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며 생명을 무너뜨리는 폭력과 악을 반대하고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

우리가 공격성이 갖고 있는 건설적인 힘과 활력의 기능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강한 공격성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일 뿐 아니라, 부정적인 공격성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 하는 능력은 나약함이 아니라 힘에서 나온다.<sup>25)</sup> 강하고 잘 절제된 사람만이 폭력을 쓰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물리적이고 왜곡된 공격성에 맞설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은 건강한 공격성에서 온다.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공격성을 표현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이다. 공격성을 두려워하다가 우유부단, 게으름, 방관, 무관심의 수렁으로 빠지기도 한다. 공격성을 억압하다가 더 큰 폭력이 폭발하기도 한다. David W. Augsburger는 공격성과 관련된 자기주장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sup>26)</sup> 주장이 없던 수동적 상태에서, 활동적 주장의 중간단계를 거쳐 폭발적인 주장적 행동의 극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 문제가 되는 순환과정은 주장이 없던 단계에서 곧 이어 극단적인 공격적 폭발로 이어지고, 이후에 대책과 함께 주장이 없는 수동적 상태에 회귀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 한 패턴으로만 반응하는 고착화된 관계 양식을 가진 사람도 있다. 주장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 생각, 또는 필요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신의 요구를 철회하고, 타인이 자신을 침해하도록 허락하거나 무시하도록 허용하면서 왜곡된 관계를 지속한다.

공격성은 억압된 것을 살펴보고, 잘못 행해지던 것을 되돌아보고 왜곡된 반응을 점검하고 안주하던 것을 흔들어 보고, 변혁에 힘을 부여하는 능력이

25) Mark Kurlansky, *Nonviolence*, 전제아 역, 『비폭력』 (서울: 을유문화사, 2006), 24.

26) David W. Augsburger, "Anger and Aggression," in *Clinical Handbook of Pastoral Counseling*, eds. Robert J. Wicks, Richard D. Parsons & Donald E. Capps (New York: Paulist Press, 1985), 494.

되어야 한다.<sup>27)</sup> 가장 어려운 도전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풀어 가야할 것은 사랑과 공격성의 통합이다. 사랑과 공격성은 상대적이고 상반적으로 이해되었던 주제였지만, 개인적 그리고 관계적으로 성숙의 증표는 이것이 재구성되어 가는 것이다.

## 2) 분노

### (1) 분노의 역기능

본래 감정(emotion)은 ‘움직이다’ (to move)라는 의미의 라틴어 어원 *motere*에 접두사 *ex*가 더해져서 구성된 단어로, ‘신속히 행동하다’ (move out), ‘이동하다’ (remove), ‘심하게 움직이다’ (agitate)의 뜻을 가지고 있다. 감정은 행동과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분노 감정 역시 행동화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Daniel Goleman은 이렇게 말한다. “각 감정은 매우 다른 종류의 반응을 위해 신체를 준비시킨다. 분노의 혈기가 손으로 흘러나가면서 무기를 집어 든다거나, 상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를 준비를 하게 한다. 심장의 박동은 빨라지고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다량 분출되면서 강력한 행동을 하기에 충분한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sup>28)</sup>

모든 폭력이 분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폭력행동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 분노감정에 의해서 유발된다. 분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불안정한 감정을 조절하고 폭력을 방지하는 유익한 출발점이 된다. 분노를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약간의 설명을 달리 하지만, 분노의 두 가지 얼굴(파괴적인 분노와 창조적인 분노, 역기능적인 분노와 기능적인 분노 등)을 언급한다. 이를 정리하면서 이관직은 다음과 같이 분노를 정의한다. “분노는 파괴적이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변화와 치료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부여해주는 소중한 선물과 은총이며, 다양한 강도와 범주를 가진 생리적,

27) Johann Baptist Metz, *Faith in History and Society: Toward a Practical Fundamental Theology*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2007), 77-90.

28) Daniel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1995), 6.

감정적, 심리적, 영적 반응이다.”<sup>29)</sup>

분노 이해의 출발점은 분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하나의 감정이라는 인식이다.<sup>30)</sup> 처음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분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또는 우리가 그 분노를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분노는 성경에서 자주 표현된 하나님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분노를 표현한 아프(*af*)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170번 등장하고 인간과 관련해서는 40번 등장한다.

성경의 시편기자 역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솔직히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비극적인 고난 가운데 고통에 압도되어 무력함에 처하고 거대한 불의와 압제를 직면하고 사악한 세력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무례한 적과 마주하며 하나님께 심령의 비탄함을 호소하고 있다.<sup>31)</sup> 미움, 증오, 적의, 폭력, 보복, 복수가 시편의 핵심 주제이다. 시편은 인간경험을 편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져오며, 인간감정의 여러 측면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매 번 이런 형태로 기도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가능한 감정적 표현이고 신앙적 소통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sup>32)</sup>

분노의 다면적 성격을 이해하려면, 우선 마음의 욕구와 동기를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하고, 그 다음에 분노를 가져오는 신체적, 환경적, 심리적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분노라는 감정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눅 6:45; 마 5:21-22, 15:19; 갈 5:19-21).<sup>33)</sup> 분노를 이해하는

29) 이관직, 『성경과 분노심리』 (서울: 대서, 2007), 14.

30) Tim LaHaye & Bob Phillips, *Anger is a Choice*, 유정희 역, 『아름다운 분노』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25.

31) Lytta Basst, *Holy Anger: Jacob, Job, Jesu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7), 25.

32) Walter Brueggemann, *The Message of the Psalms* (Minneapolis, MN.: Augsburg, 1984), 71-72.

33) Michael R. Emler, *Angry Christian: Understanding and Helping Your Child Regain Control*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08), 4-5.

방법은 안, 곧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분노의 감정은 왜곡된 방향을 향하게 된다.

분노는 몇 가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첫째,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을 비난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sup>34)</sup> 분노가 타인을 향한 비난이나 희생양 찾기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 처음 ‘분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의 동생 아벨 역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창 4:4-5)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분노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5-6절).

하나님은 두 가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다. “왜 분하였느냐?” “왜 안색이 변하였느냐?” 가인에게는 분노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과, 그것을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했다.<sup>35)</sup> 비난과 희생양을 가져오는 매개체 중에 하나가 분노의 억압이다. 이것은 희생양을 만들어 내고 축적된 폭력을 주변 사람에게 돌린다. 이것이 일시적인 완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분노를 푸는 열쇠가 될 수는 없다. ‘화나게 하는 대상’ 또는 ‘화나는 것’에 대한 대면을 통한 문제해결의 기회를 놓쳐버린다. 가인의 분노는 그의 동생에게 향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4:12).

둘째, 분노를 부인하고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이 있다. 분노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억압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삶의 문제와 씨름하는데 활용 가능한 공격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분노하는 대상과의 어떤 관계도 요원하게 한다. 분노는 차갑게 변하여서 내재되어 있다가 다음 세대에 투사되기도 하고, 성장 또는 새로운 결단을 위한 힘을 소멸시킨다. 내재된 분노가 정당하게

34) Paul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황규명 역,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서울: 디모데, 2005), 125-126.

35) Basst, *Holy Anger*, 22.

경험되고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창조적인 에너지로 풀어내져야 한다.

셋째, 만성적인 분노표현에 익숙한 사람이 있다. 원한에 사로잡혀있고 크고 작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붙잡고 있다. 성에 차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집착하며, 자녀들이 어떻게 실망시키는지에 주목한다.<sup>36)</sup> 성급하게 반응하는 분노가 학습되었고, 주변 환경에 대해 과민하여 언어적 그리고 감정적 분출이 자동적으로 수반된다. 분노 처리의 파괴적인 형태를 인식하고 창조적인 표현을 재학습하고 선택하는 것이 요구된다.

## (2) 분노의 순기능

분노는 창조적으로 또는 파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감정적 반응이다.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분노는 ① 그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여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게 하고, ② 사람의 존귀함을 위협하는 부당한 기만을 대응하며, ③ 극복적 행동을 만들어내고, ④ 재타협을 필요로 하는 관계적 성격을 분별하고, ⑤ 궁극적으로 화목과 치유를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한다.<sup>37)</sup> 분노를 선용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세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폭력으로 발전하기 전에 분노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노를 속수무책의 감정으로 여기지 않고, 분노를 인식할 때 충동적 행동을 방지한다. 신경생물학적 정보에 따르면, 인간은 감정의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분노의 상황에서 “대뇌의 신뢰질은 생각의 좌소이다. 그것은 감각이 인식하는 것을 함께 취합하고 파악한다. 우리는 그에 대한 생각에 느낌을 더한다....전두피질은 어떤 사람이 두렵거나 분노가 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느낌을 억누르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왼쪽 전두엽이 아마도 오른 쪽 전두엽을 억제하면서 그러한 거친 감정을 억누르는 반면에, 오른 쪽 전두엽은 두려움과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좌소가 된

36) Zelig Pliskin, *Anger: The Inner Teacher*, 변정숙, 유지훈 역, 『화, 마음의 멘토』 (서울: 대서, 2010), 44-45.

37) Augsburg, “Anger and Aggression,” 488.

다.”<sup>38)</sup>

비록 분노로 인해 우리 목소리가 높아지고 육체가 들썩거린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분노는 분명 우리가 행동하도록 하지만 한 가지 가능한 선택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sup>39)</sup> 주님께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마 5:38-39)라로 말씀하셨다. 온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같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이에 대한 실제적인 본을 보이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요 18:23).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분노를 인식하고 충동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노에 반응할 수 있다.

둘째, 자기 통제를 연습한다. 통제는 통제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야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내가 화났어”라고 했을 때, 판단이나 억압이 없는 수용을 받아본 경험이 없을 수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분노 감정 자체의 인식이 어려울 때가 있다. 그가 속한 환경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는 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지지와 신뢰관계의 정황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억압이 아닌 억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선 분노를 느끼게 하고 그것을 통제하게 한다. 억제의 기술을 배우면서(자기 인식, 내적 자기조절, 인지적 통제), 자신이 분노를 느끼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연습한다. “일시적인 기간 동안 불만의 고통을 경험하고 마음에 차지 않는 환경을 수용한다. 분노의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파괴적 성향을 제거하도록 하고 가정과 사회의 정황에서 허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신을 경험한

38)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11-12, 17, 24-25.

39) Basst, *Holy Anger*, 25.

다. 분노는 수용, 화해, 용서를 향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중간단계가 된다.”<sup>40)</sup>

셋째,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서 감정에 대한 책임을 발견하고 살펴보아야 한다.<sup>41)</sup> 분노는 주로 순간적인 해석학적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리학적 각성은 우리가 환경을 해석한 후 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석은 간발의 차이로 각성에 선행하기 때문에 해석의 왜곡된 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한 영역은 ① 자존감의 근거를 살펴보기: 우리의 가치를 개인적 성공이나, 타인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여기면 분노에 취약해진다. ② 지향점을 살펴보기: 분노 상황에서 목적 지향적이지 아닌 개인 지향적으로 가게 되면 분노에 취약해진다. 즉 나에게 대한 공격이나 모욕으로 지나치게 받아드릴 때, 자기방어로 반응하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목적), 해야 하는 것(임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바라는 결과)에 초점을 두면 분노에 의해서 압도당하지 않는다. ③ 자신에 대한 신념체계 파악하기: 인지-정서의 과정에 개입되는 부정적인 자기진술과 자기패배적인 자기인식을 가려낸다. “나는 무력해, 나는 통제를 잃어버렸어, 나는 하찮게 여겨지고 무시되고 있어”와 같은 생각을 거부하고,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 나는 자신을 통제하고 만족할만한 결론에 이를 수 있어”와 같은 자기확증으로 나아간다.

넷째, 분노가 관계를 풀어가는 에너지가 되도록 한다. Lytta Basst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사랑 안에서 관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sup>42)</sup>

이사야는 자비와 분노가 연계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열정을 표현한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

40) David W. Augsburger, *Hate-Work: Working through the Pain and Pleasures of Hate* (Louisville, KT.: Westminster John Knox, 2004), 67.

41) Augsburger, “Anger and Aggression,” 490-491.

42) Basst, *Holy Anger*, 22-23.

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사 54:8-9).

여기서 자비(*hesed*)으로 번역된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변함 없는 사랑’ 또는 ‘인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sup>43)</sup>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노를 다루시는 방법은 분노가 표현되면서 잠시 관계로부터 물러나지만, 다시 영구적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서 그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비록 분노로 인해서 어떤 때는 힘든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와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지켜가라는 의미이다.

### 3. 폭력의 대안

시편 139편의 저자는 분노와 미움의 적나라한 감정을 표출한 후에(19-21절),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23-24절). 그가 자신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보면 ① 무한하고 초월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② 그 분 앞에서 두려움, 경이, 겸손을 고백하고, ③ 원수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없애주시기를 요구하고 스스로 과격한 행동을 하려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④ 마음의 가장 깊은 비밀의 영역을 아시는 하나님께 철저한 자기노출을 행하고 있다. 시편기자의 고백의 가르쳐주듯이, 폭력 역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작업이 본질적인 대안이다.<sup>44)</sup>

43) Francis Brown, S. R. Driver & Charles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79), 338-339.

44) 외상으로 인한 상처 치유의 일반적 과정은 치료적 관계(healing relationship), 안전의 확보(safety), 기억과 애통(remembrance and mourning), 재연결(reconnecting), 회복(commonality)으로 구성된다. Judith Herman,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Basic Books, 1997), 133-236.

## 1) 회개

폭력 가해자의 변화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변화의 의지를 보일 때 중요한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다. Edward T. Welch 는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면서, 가해자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제안한다.<sup>45)</sup> 첫째, 책임(accountability):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타인에게 그의 죄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기꺼이 말해야 한다. 둘째, 고백(confession): 그는 자신의 분노가 파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행동이 결국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죄를 미워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셋째,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하기: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도 그것이 깊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그의 오만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역'(약 4:1-10)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범한 죄를 고백해야 하고 그 분을 알고 경외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가해자가 하나님께만이 아니고 폭력의 희생자에게 뉘우침을 표명할 때, 회개의 지표가 정당하게 확인되어야만 관계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다.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은 순환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 긴장이 높아지는 첫 단계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폭력이 일어나고, 이에 대해서 간과, 침묵, 길들여지는 과정이 있게 된다. 둘째 단계에서는 강한 폭력이 자행된다. 셋째 단계에서 폭력에 대한 뉘우침과 선물이나 약속이 제공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첫 단계의 폭력이 다시 시작된다. 뉘우침을 선부르게 수용하게 될 때, 폭력은 반복되고 오히려 더 은밀하고 기만적이 될 수 있다.

뉘우침에 대한 평가가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진정한 회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sup>46)</sup> 첫째, 인식(perception): 상처를 받은 피해

45) Edward T. Welch, *Living with an Angry Spouse: Help for Victims of Abuse*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08), 21-22.

46) Lewis Smedes, "Forgiving People Who Do Not Care," *Reformed Journal* 33(1983): 13-18; Tracy, *Mending the Soul*, 189-190.

자의 시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본다. 피해자가 보는 것과 똑같이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입힌 상처를 인정하고, 행동이 비열했고 불공정했고 참기 힘든 것이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돌을 던진 사람은 곧 잊어버리고, 맞은 사람은 영원히 기억한다”는 속담이 있다. 가해자 역시 기억해야만 진정성이 공유된다. 회개는 악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통해 깊어지고 미래는 과거를 통해 활짝 열린다.

둘째, 고통(pain): 인식의 단계에서 느낌의 단계로 나아간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준 고통을 함께 한다. 피해자의 실망과 배신의 아픔, 육체와 마음의 아픔을 깊게 공유한다. 셋째, 고백(confession):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앞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탄원하며, 상처 준 것과 그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넷째, 약속(promise): 피해자를 존중하고 있고 다시는 폭력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만큼 새 경계선을 설정한다. 죄스런 폭력적 행동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다.

피해자 역시 회개를 필요로 한다. 너무 쉽게 피해자는 용서하고 가해자는 회개해야 한다는 도식이 적용된다. 용서와 회개는 구분된 직무가 아니라 상호간에 이뤄지는 작업이다.<sup>47)</sup> Dan B. Allender는 회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회개가 가해자만이 아니고 피해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회개가 “우리의 타락한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를 직면했을 때의 겸허한 갈급함, 담대한 행동, 거친 축하의 반응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sup>48)</sup>

피해자가 생존에 필요한 방어기제로 활용한 행동(감정적인 무감각, 부인)이 처음에는 심각한 악에 대한 방어막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버팀목이 우상이 된다. 회개는 삶의 내적 그리고 외적인 영역에서 버팀목

47) Martha E. Stortz, “The Practice of Forgiveness: Disciples as Forgiven Forgiver,” *Word and World* 27(2007): 16.

48) Dan B. Allender, *The Wounded Heart: Hope for Adult Victims of Childhood Sexual Abuse*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2008), 201.

을 무너뜨리고 죽음에서 돌아서서 생명으로 향하는 능력과 행동이다. 회개를 통한 내적인 변화는 죽음과도 같은 감정(슬픔, 비탄, 비통)과 무감각을 이겨내고, 불신을 거부하고,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회개는 피해자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

## 2) 힘과 사랑의 통합

힘과 사랑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 가장 큰 걸림돌은 폭력을 폭력이라는 힘으로 대응하려는 유혹이다. Walter Wink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 “폭력은 우리 시대의 사조와 같다. 그것은 현대 세상의 영성이다. 폭력은 그것을 추종하는 광신자에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면서 종교적 위상을 가진다. 그러나 추종자는 폭력에 매진하는 자신의 분투가 종교적 경건의 형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기독교가 아닌 이것이 진정한 종교가 되었다.”<sup>49)</sup> 현대 문화는 이러한 폭력의 숭배를 성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것이 매스 미디어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이고, 그러한 경향을 반대하는 사람조차 종종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보복과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주장이 지속되면서, 폭력적 해결이 진정한 답인 것처럼 제안되고 있다. 폭력이 경계와 공포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동력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폭력은 끝없는 또 하나의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Mark Kurlansky는 “폭력의 실천은 세계를 바꾼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하여 바뀐 세계라면 좀 더 폭력적인 세계일 뿐이다”라는 Hannah Arendt의 말을 인용한다.<sup>50)</sup> 폭력은 인간의 주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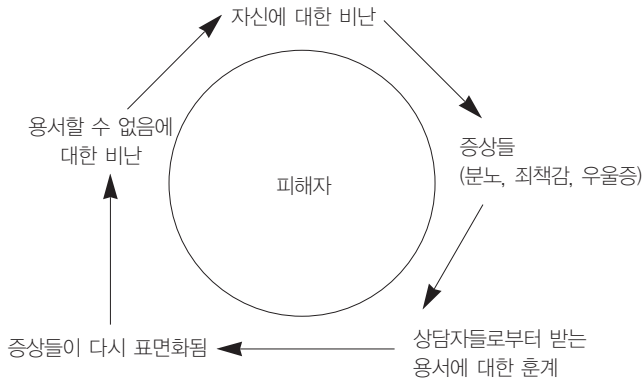
복수의 목적은 고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가르치는 것이지만, 처벌 받은 가해자는 희생자의 것이 아닌 자신의 고통을 느낄 뿐이다. 어떤 것

49) Walter Wink, *Engaging the Powers*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1992), 13.

50) Kurlansky, *Nonviolence*, 7.

도 가르쳐지거나 배워지지 않는다. 복수가 행해지게 될 때, 악은 이중적인 승리를 하는 것이다. 폭력은 항상 희생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보복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고통이 된다. 복수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악한 자를 복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피해자에게 위로의 능력으로 작용해야 한다.<sup>51)</sup>

더 나아가 성경이 제시하는 힘과 사랑의 통합의 수단이자 능력은 용서이다. 폭력의 희생자와 작업을 한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회복의 도구로 사랑이나 용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sup>52)</sup> 이들의 우려는 용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선부른 용서는 가해자로 하여금 지배권을 유지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오히려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폭력의 희생자에게 아직 감당하기 힘든 또 다른 짐을 지울 수도 있다. Jan Frank는 이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용서의 권면이 피해자에게 파괴적인 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그림 참조). 용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기독교적 삶의 다른 모든 영역이 그러하듯 용서는 시간이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sup>53)</sup>



51) Dan B. Allender & Tremper Longmans III, *Bold Love*, 마영례 역, 『담대한 사랑』 (서울: 이레서원, 2003), 230-231.

52) 대표적인 책으로 Ellen Bass & Laura Davis, *The Courage to Heal* (New York: HarperPerennial, 1994)이 있다.

53) Jan Frank, *Door of Hope*, 박성호 역, 『소망의 문』 (서울: 진흥, 1995), 156-157.

Steven R. Tracy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성경은 세 가지 범주의 용서를 말하고 있고 이것을 주의 깊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54)</sup> 사법적 용서는 하나님에 의한 죄의 면제 또는 용서와 관련된 것이다. 인간은 사법적 용서를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결국 가해자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심리적 용서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용서로 부정적으로는 증오와 복수심을 버리는 측면과, 긍정적으로는 가해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측면이 있다. 관계적 용서는 관계의 회복으로 화목과 같은 말이다. 용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증오를 버리고 은혜를 베푸는 법을 배우게 된다(심리적 용서). 이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한 것이지만, 결국 관계적인 용서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고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화목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른 한편 너무나 많은 치료현장이 단지 용서를 심리적 차원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적 해방에 머물러있다. 용서를 동기화 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표어로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표어가 사용되고 있다. 용서가 사적이고 개인적 치료의 도구는 되었지만, 떨어진 관계를 화해하게 하는 수단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계적 용서의 전략이 발전하고 도전될 필요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핵심은 관계의 변혁이다. 분노와 공격성의 순기능의 핵심에도 관계에로 나아가는 힘이 있다. 용서가 상호 간에 이뤄지는 회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헌신, 성취되었다는 확증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진정한 상호관계적 용서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뚜렷해진다.<sup>55)</sup> 관계적 용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과 동등함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가해자의 악한 행위가 그에 대한 동정 또는 사랑을 거두는 타당한

54) Tracy, *Mending the Soul*, 184-190.

55) Augsburg, *Hate-Work*, 220.

이유가 될 수 없다. 가해자의 악행은 용납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존재로서의 본래적 가치를 축소하거나 없앨 수는 없다. 가해자를 인간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대화를 위해 문을 여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감과 동정이 또 다른 발걸음을 옮겨놓는 힘으로 작용한다.<sup>56)</sup>

### Ⅲ. 닫는 글

폭력은 인간의 타락 이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 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주변의 현실이다. 폭력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그러짐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대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기초한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회복의 핵심적인 요소로 제공하시는 회개와 용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한 원리와 자원으로 작용한다. 분노와 공격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를 순기능화하는 훈련은 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며, 더 나아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으로 활용된다.

지금도 말 없이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 이들을 보시며 더 아파하시는 분이 있음을 믿는다.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신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신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인줄 믿는다. 폭력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방관자도 이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에 동참하는 현장이 확대되기를 소망한다.

---

56) 안경승, “결혼에서의 용서”,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0권 (2008): 54-56.

【 참고문헌 】

- 김상균. 『폭력의 심리학』.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5.
- 김병오. 『부끄러움과 가정폭력』. 서울: 학지사, 2009.
- 안경승. “결혼에서의 용서”.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0권 (2008): 37-66.
- 이관직. 『성경과 분노심리』. 서울: 대서, 2007.
- 천정환. 『신범죄심리학』. 서울: 대왕사, 2006.
- Allender, Dan B. & Longmans III, Tremper. *Bold Love*. 마영례 역. 『담대한 사랑』. 서울: 이레서원, 2003.
- Allender, Dan B. *The Wounded Heart: Hope for Adult Victims of Childhood Sexual Abuse*.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2008.
- Augsburger, David W. *Anger and Assertiveness in Pastoral Care*.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82.
- Augsburger, David W. “Anger and Aggression.” In *Clinical Handbook of Pastoral Counseling*, eds. Robert J. Wicks, Richard D. Parsons & Donald E. Capps. New York: Paulist Press, 1985.
- Augsburger, David W. *Hate-Work: Working through the Pain and Pleasures of Hat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4.
- Bandura, Albert. *Aggress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 Basst, Lytta. *Holy Anger: Jacob, Job, Jesu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7.
- Berkowitz, Leonard. *Aggression: Its Cause, Consequences, and Control*.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1993.
- Brown, Francis, Driver, S. R. & Briggs, Charles A.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79.
- Brueggemann, Walter. *The Message of the Psalms*. Minneapolis, MN.: Augsburg, 1984.
- Cooper-White, Pamela. “An Emperor Without Clothes: The Church's Views about Treatment of Domestic Violence.” *Pastoral Psychology* 45(1996): 3-20.
- Dobash, R. Emerson & Dobash, Russell P. *Women, Violence and Social Change*.

- New York: Routledge, 1992.
- Emler, Michael R. *Angry Christian: Understanding and Helping Your Child Regain Control*.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08.
- Frank, Jan. *Door of Hope*. 박성호 역. 『소망의 문』. 서울: 진흥, 1995.
- Gilson, Anne & Heyward, Carter. *Revolutionary Forgiveness*. Maryknoll, NY.: Orbis Books, 1987.
- Goleman, Daniel.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1995.
- Herman, Judith.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Basic Books, 1997.
- Kurlansky, Mark. *Nonviolence*. 전제아 역. 『비폭력』. 서울: 을유문화사, 2006.
- LaHaye, Tim & Phillips, Bob. *Anger is a Choice*. 유정희 역. 『아름다운 분노』.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 Lester, Andrew D. *The Angry Christia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MacArthur, John. "Counseling and the Sinfulness of Humanity," In *Introduction to Biblical Counseling*, eds. John F. MacArthur & Wayne A. Mack. Dallas, TX.: Word, 1994.
- May, Rollo. *Power and Innocence*. New York: Norton, 1972.
- Metz, Johann Baptist. *Faith in History and Society: Toward a Practical Fundamental Theology*.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2007.
- Pagelow, Mildred D. & Johnson, Pamela. "Abuse in the American Family: The Role of Religion." In *Abuse and Religion: When Praying Isn't Enough*, eds. Anne L. Horton & Judith A. Williamson.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8.
- Pliskin, Zelig. *Anger: The Inner Teacher*. 변정숙, 유지훈 역. 『화, 마음의 멘토』. 서울: 대서, 2010.
- Poling, James N. *The Abuse of Power: A Theological Proble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1.
- Smedes, Lewis. "Forgiving People Who Do Not Care." *Reformed Journal* 33(1983): 13-18.
- Storr, Anthony. *Human Aggression*. New York: Penguin Books, 1992.
- Stortz, Martha E. "The Practice of Forgiveness: Disciples as Forgiven Forgiver."

*Word and World* 27(2007): 14-31.

Thompson, Clara. *Interpersonal Psychoanalysis*, ed. Maurice Green. New York: Basic Books, 1964.

Tracy, Steven R. *Mending the Soul*.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5.

Tripp, Paul.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황규명 역.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서울: 디모데, 2005.

Welch, Edward T. *Living with an Angry Spouse: Help for Victims of Abuse*.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08.

Wink, Walter. *Engaging the Powers*.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1992.

“남편 학대 높아지는 이유는?”. 『매일경제』, 2010. 12. 02.

“미운 남편”, 『조선일보』, 2011. 04. 19.

【 Abstract 】

## Violence: Its Beginning, Extending, and Control

**Kyung Seung Ahn**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It is difficult for us to accept the fact that violence is rampant, But the evidence for this prevalence of violence is overwhelming and scripture and human history repeatedly bear out this horrible fact. All humans are born not morally neutral but sinfully depraved and have the potential to violate and overpower the weak with behaviors and tongues. In addition to human depravity, another factor which makes violence predictable is the role of Satan and his demonic legions. If violence is widely distributed throughout all areas of society, we need to offer the possible measures. To work out a solution to violence, we try to consider anger and aggression linked closely with violence. These two factors are powerful energy that has destructive potential. While destructive anger and aggression move us toward dysfunction, creative anger and aggression move us toward well-being. Since our emotions and behaviors are tied to our hearts, helping involves targeting the root cause. Thus, it'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we sketch out a spiritual way for healing. We stress the need of the spiritual necessity of healing including repentance and forgiveness as a integration of power and love. Repentance is an important part of the healing process and forgiveness is a essential mean to reconcile a offender to a victim.

**Key words:** violence, aggression, anger, repentance, forgiveness